

페퍼스, 광주 만원 관중 속 패배...최하위로 시즌 마무리

현대건설에 1-3패...5승31패 승점 17로 3시즌 연속 7위 기록

AI페퍼스가 현대건설 우승의 제물이 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3-2024 V리그 정규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1-3(25-23 15-25 24-26 19-25)으로 패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최종전을 치른 2위 흥국생명(승점 79)에 승점 2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에 나섰다.

만약 페퍼스가 세트 2개를 따내며 경기를 폴세트 접전까지 끌고 갔다면 우승을 노리던 현대건설의 발목을 잡게되는 상황이었지만, 페퍼스는 승점 3점을 모두 내어주며 안방에서 남의 잔치를 봤다.

1세트는 페퍼스의 승리였다. 1점 차 싸움을 펼치다 세트 중반부터 페퍼스는 점수차를 벌리며 우위를 잡았다. 세트 막바지엔 24-23까지 추격당했지만 야스민의 블로킹 덕분에 페퍼스는 세트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야스민이 1세트에서만 11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이한비와 박정아가 각각 4득점, 3득점으로 힘을 더했다. 유효블로킹도 11개를 기록했다.

2세트는 초반부터 페퍼스의 잦은 범실이 나오며 세트 승리는 현대건설의 몫이 됐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 5개의 범실을 냈다.

세트 점수를 하나씩 나눠가진 상태에서 3세트가 시작됐다. 야스민은 3세트에서 70.59%의 공격성공률을 보이며 13득점을 올렸다. 24-24 듀스를 만들며 접전이 펼쳐졌지만 모마의 백어택이 연이어 성공

하며 결국 페퍼스는 3세트도 현대건설에게 내줬다.

4세트에서 페퍼스는 8-7 상황 현대건설 모마-양효진의 연속 7득점에 역전당했다. 8-12로 팀이 끌려가기 시작하자 이경수 감독대행은 작전타임을 요청하고 과감한 플레이와 리시브를 강조했지만 점수는 8-14까지 벌어졌다. 페퍼스는 막판 집중력으로 19-20까지 추격했지만 이후 야스민의 공격을 현대건설 리베로 김연경이 번번히 받아내며 틈을 내주지 않았고, 결국 현대건설이 세트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페퍼스는 5승 31패 승점 17로 3시즌 연속 최하위인 7위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 했다.

이경수 감독대행은 경기 직후 "첫세트는 유효블로킹도 잘 맞았는데 이후 범실이 하나 둘 나오면서 즐거지지 않으나 생각한다. 현대건설의 밀어치는 불이나 중앙 볼을 받지 못했던 게 크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또 "마지막 라운드 와서 선수들이 많이 무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나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시즌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주장 박정아도 "아쉽지만 아무도 큰 부상 없이 끝까지 다행이다"며 "많이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 페퍼스타디움에는 40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올 시즌 2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I페퍼스가 지난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포항벽 높았다...광주FC 3연승 '좌절'

'K리그1' 공격 기회 못잡고 후반 추가시간 골 내주며 0-1 패

광주FC의 질주가 '포항벽'에 막혔다. 광주가 17일 포항 스틸아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4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48분 정재희에게 골을 내주면서 0-1패를 기록했다.

FC서울전 2-0 승리 뒤 강원FC에 4-2 역전극을 연출했던 광주의 연승이 중단됐다.

김기동 감독에 이어 사령탑에 오른 포항 박태하 감독은 대구전 3-1승리에 이어 광주의 돌풍을 잠재우고 연승을 지휘했다.

포항의 철벽 방위에 광주가 힘든 전반전을 보냈다. 전반 45분 광주의 이날 첫 슈팅이 기록될 정도로 광주의 공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

두 차례 실점 위기도 있었다.

전반 8분 중원에서 공을 잡은 포항 조르지가 그대로 공을 몰고 광주 전역으로 가서 슈팅까지 시도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침착하게 조르지의 슈팅을

막으면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다.

전반 18분에는 오베르단의 슈팅이 나왔지만 공이 높게 땀다.

전반 20분 이희군이 포항 진영을 부지런히 누비면서 모처럼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지만, 슈팅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광주가 전반 23분 '루키' 안혁주를 빼고 '무등산 호랑이' 가브리엘을 투입하면 분위기가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한 광주는 전반 31분, 중원에서 공을 뺏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포항 홍윤상이 그대로 광주 전역으로 돌진해 김경민을 마주하고 슈팅을 날렸다. 김경민이 공을 막아냈지만, 세컨볼이 다시 홍윤상에겐 향했다. 이번에는 홍윤상의 슈팅이 뜨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후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됐고, 전반 45분

이희군이 겨우 광주의 첫 슈팅을 만들었다.

광주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누르고, 이희군이 수비진 사이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다. 그러나 공은 어렵게 골키퍼 황인재의 수비에 막혔다.

후반 13분 정호연이 상대 태클을 넘어지면서 프리킥 기회가 찾아왔다. 왼쪽에서 엄지성이 직접 프리킥을 노렸지만 발끝을 떠난 공은 골대를 지나쳤다. 팽팽한 기싸움 끝에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부상 복귀전에 나선 정재희를 막지 못했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7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후반 48분 포항의 골키퍼 김기동은 광주 전역으로 넘어왔고 이희재의 머리를 지나 전방으로 공이 연결됐다. 정재희가 빠르게 공을 쫓은 뒤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남은 시간 광주가 막판 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바둑 최정예 군단, 춘란배 4연패 도전

오늘 개막...신진서·박정환·변상일 등 6명 출전



왼쪽부터 김명훈·신민준·신진서·박정환·변상일·박건호 9단.

한국 바둑이 중국이 주최하는 세계대회 춘란배에서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제15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는 18일 중국 푸젠성 사면에서 개막식을 열고 19일부터 24강전을 시작한다.

격년으로 열리는 춘란배는 한국이 최근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12회 대회에서 박정환 9단, 13회에서는 신진서 9단이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 끝난 14회 대회 결승에서는 변상일 9단이 중국의 리쉬안하오 9단을 2-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4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 최정에 멤버인 신진서·박정환·변상일·신민준·김명훈·박건호 9단, 6명이 출전한다.

"디펜딩 챔피언"인 변상일은 전기 시드로 일찌감치 분선행을 결정지었고 신진서·박정환은 국제대회 우승 시드를 받았다.

신민준·박건호는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를 받았고, 김명훈은 지난 2월 열린 국내선발전에서 미지

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패권 탈환을 노리는 주최국 중국은 전기 대회 준우승자 리쉬안하오를 비롯해 구쥘하오·커제·딩하오·양딩신·당이페이·리웨이칭·미위팅·셰일하오·양카이원 9단까지 10명이 참가한다.

일본은 이치키리 료·시바노 도라마루·이야마 유타·시즈우안 9단과 히로세 유이치 7단,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대만 쉬하오 9단, 미주 대표 알렉산더 치 초단, 유럽 대표 안 시마라도 각각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춘란배는 19일 24강전에 21일 16강전을 펼친다. 8강과 4강전은 12월에 열리며 대망의 결승전은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14차례 열린 춘란배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8번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 5번, 일본이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춘란배 우승상금은 15만달러(약 1억천900만원), 준우승 상금은 5만달러(약 6650만원)다.

/연합뉴스

안세영, 또 부상에 무릎 꿇었다...전영오픈 2연패 좌절

4강전에서 야마구치에 1-2 패

안세영(22·삼성생명)의 전영오픈 2연패가 좌절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에게 1-2(10-21 21-19 14-21)로 패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안세영은 지난주 프랑스 오픈에 이은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도 무산됐다.

안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27

년 만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전영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대회로, 189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대회다.

비록 결과는 패배이지만, 안세영은 끈질긴 투지로 야마구치와 치열한 혈투를 펼쳤다.

1세트에서 무거운 몸놀림을 보이며 완패한 안세영은 2세트에서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쳤던 오른쪽 무릎 통증을 도졌다.

안세영은 9-11로 맞은 2세트 휴식 시간 동안 소염진통제로 보이는 연고를 오른쪽 무릎에 바랐다.

그런데도 4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잡은 안세영은 한 점 차로 앞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이어갔다. 이어진 19-19에서 두 점을 먼저 쟁겨 경기를 3세트로 끌고 갔다.

3세트에는 허벅지가 문제였다. 안세영은 허벅지를 손으로 짚거나 주먹으로 두들겼다.

다리가 붓게되면서 스트로크는 무뎠다. 안세영은 10-16에선 잠시 코트 밖 바닥에 앉은 채 허벅지에 간단한 의료 처치를 받기도 했다.

안세영은 체력에서도 바닥을 보이며 점수 차를 줄이지 못했고 결국 3세트를 내줬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도
- 2관 톨: 파트2, 윙카
- 3관 마담 헬
- 4관 밥 말라: 윈 러브, 윙카
- 5관 파도, 밥 말라: 윈 러브
- 6관 파도, [위드키즈]브레드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 9관 [위드키즈]용감한 돌고래 벨루와 바닷속 친구들, 랜드 오브 배드, 패스트 라이브즈
- 7관 싸이클링: 가까운 것들, 윈 앤 온리, 메이 디셈버
- 8관 싸이클링: 파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